

Economic Policy Forming Process of Korea

Ilho Yoo




Economy

- Oekos Nomos (Principle to manage Household or Life) is said to be the origin of this word
- 경세제민 (經世濟民) ? Manage the world and Save the People
- Problem of the choice : Scarce resources and Insatiable (Unlimited) Desire (Want)



Economics

- Field to study Economic phenomena and activities
 - Field to study how to produce consume and allocate using scarce resources (Samuelson)
 - Study the problem of choice : Opportunity cost
- 

What is Economic Policy?

- Application of economic theory to the real world
- Coordination and harmonization are needed because there are conflicts of interest among related parties (opportunity cost again)
- Therefore, political process is inevitably followed :
Voting, Majority rule



Poli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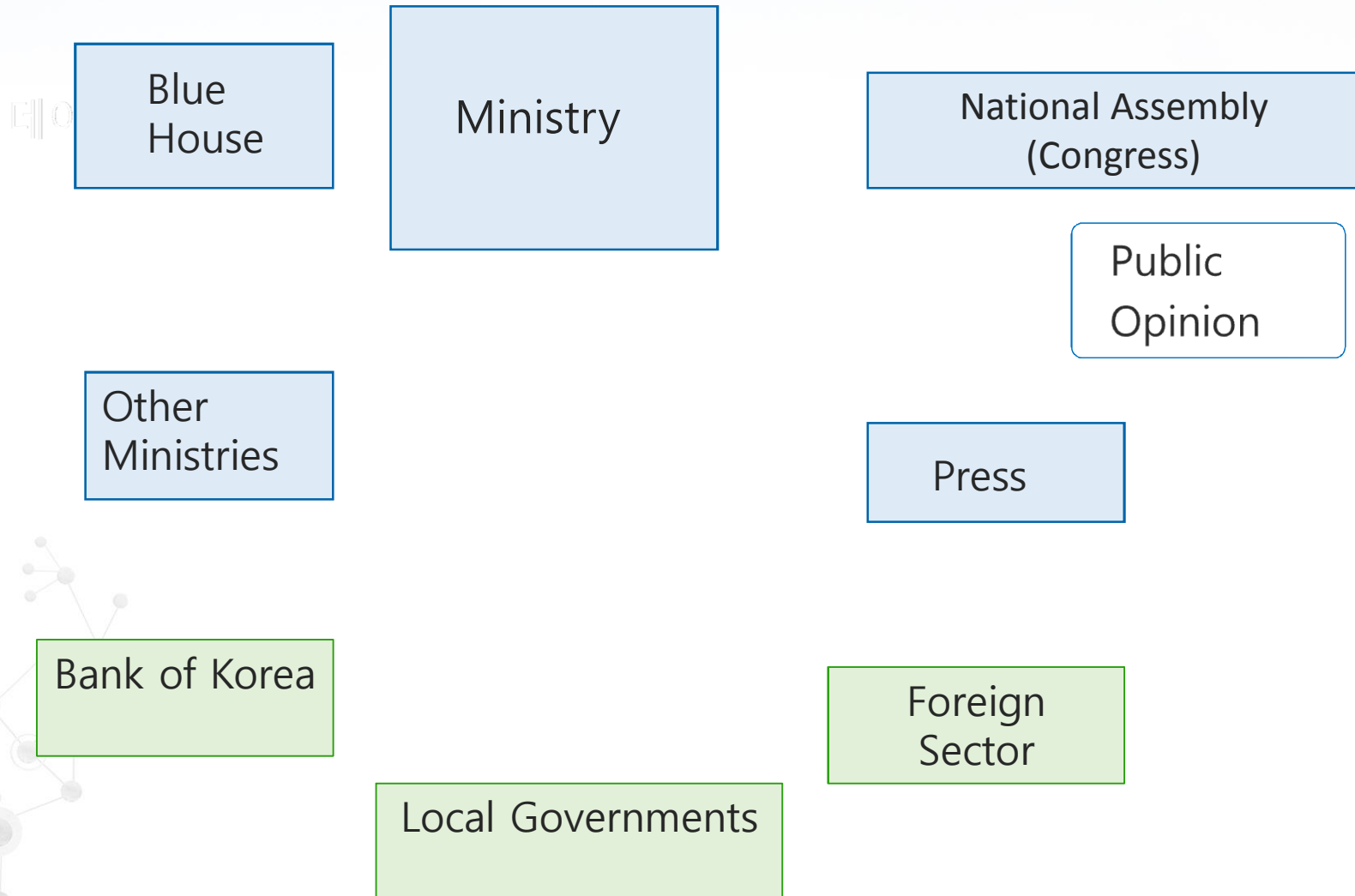
- Politics as a common (collective) decision process
- Politics as a power exercise
- Politics is a power struggle to distribute value?





•Again, the Problem of Choice!

Related Parties of Process



Coordination Process

Blue House

Meeting of Discussing
Current Economic
Issues

Tripartite Meeting of
Ruling Party,
Administration and Blue
House

Other Ministries

Cabinet Meeting

Meeting of
Economy related
Ministers

Meeting of Foreign
Economy related
Ministers

Deputy Ministers
Meeting

National Assembly

Committee Meeting

Question and Answer
Session at Congress
Plenary Meeting

Special Session for
National Budget

National Audit

Leadership should depend on the system

- Meetings should be actively used

Staffs of directors level or under should meet as often as possible

Meetings between congressional staffs and government staffs

Decision making at high level is done after all these processes are finished

- Dialogues with other groups (official or unofficial) should be activated

부문간 상생

▶ Press, Academia

Points should be considered

- Practicality is the essence of the policy (To catch the mouse, it is not important whether a cat is black or white:黑猫白猫)
- Political (or Ideological) cause is important but should not be overemphasized

Points should be considered

- Basic directions of policies are generally decided outside the administration
- Staffs' opinions should be regarded highly in shaping details of policies
- Opinions of outside experts should be considered

highly

일호 “법인·소득세를 올리면 부작용이 더 크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다 자리를 찾아오고 있다. 연합뉴스

연말 증세전쟁 예고한 기획재정부 국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무예산위원회(DTI)를 집단대응에 적응하거나 비율을 지금보다 더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여당이 추진 중인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 발사의 증세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의견을 거듭 피력했다.

“DTI 비율 리할 조정 어려워” 유 부총리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재외 관련 “국제금융기금(IMF)이 각국 DTI 비율을 20~30% 수준으로 낮추 것을 권고했는데 이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DTI는 이제 2년 정도 더 (다리를 잘랐기 때문에)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2년 전 처음 수도권에 한해 DTI를 30%에서 60%로 낮췄다.

기재부재외 줄이기 위해 법인세율과 증여나 채증공공 대응 관련도 검토해 야 한다는 지적에는 “집단체결 관련도 검토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개인에게 적용하는 DTI 기준은 집단 대응에 대응하기는 어려워 다른 방법으로도 상상을 감해고 있다”고 말했다.

“중위 집단을 목표치(2.8%)를 달성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대민주 의원님 질문엔 ‘추진(추가경정예산) 효과’가 있고 현재 하고 있는 3000억원의 세율 내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심상을 적용하는 방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새누리당 의원이 “백근세 정부 임기가 끝날 때쯤 100%와 같은 효과까지가 오는 것 아니냐”고 물자 유 부총리는 “그동안 시

같은 상황이 다르다”며 “그런 상황은 가장한 대응 방안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세율 올리는 증세전쟁”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구간은 신장세 적용을 원했다며 더 높아지는 여당의 증세 발안에 대해 유 부총리는 “중기적 시점에서 볼 때 세율을 올려 증세를 하면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이번 대외견을 분명히 했다.

김부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세율만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세입 부문도 필요하다”며 “고소득자 등 여유가 있는 층을 대상으로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세입 증진을 어떻게 하든 세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교진 의원은 “세입 증진을 위해서는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교진 의원은 “세입 증진을 위해서는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朝鮮日報

2016년 10월 10일 월요일 B02면 경제종합

“韓銀이 금리 더 내려야”... “정부가 재정 더 풀어야”

유일호·이주열 ‘부양책 신경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연차총회 참석차 나란히 미국을 방문한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여력이 있다고 언급했고, 이 총재는 재정에 아직 여력이 있다며 재정 역할론을 강조했다. 서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유 부총리는 8일(현지 시각) 워싱턴에

서 가진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한국은 기준금리가 1.25%라 아직은 (추가로 인하할) 공간이 있다”고 말했다. 주요 선진국의 기준금리가 제로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추가로 확장적 통화정책을 쓸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유 부총리는 “단순 논리로 따져 공간이 있다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한은이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했다.

반면 이 총재는 정부가 재정 정책을 써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총재는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 안정 리스크를 고려할 때 통화정책을 쓸 여력

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며 “정부가 재정 정책을 확장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재정 건전성은 세계적으로 톱클래스”라고 했다. 추가적인 통화 완화정책을 가동하면 가계부채를 키우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 정부가 재정을 더 풀어서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두 사람이 갈등을 빚는 양상으로 비치자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원론적인 언급”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유 부총리의 발언이 이번 연차총회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일호 부총리

이주열 총재

IMF 총재가 재정을 더 풀어야 하는 국가로 한국, 독일, 캐나다를 꼭 짚어 이야기한 것과 연관돼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IMF의 공개적인 재정 확대 요구에 부담을 느낀 유 부총리가 ‘한국은 독일, 캐나다보다 기준금리가 높아 상황이 다르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것이다. 기재부와 한은은 지난 6월 기업 구조 조정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손진석 기자

G20 2016 CHINA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February 26-27, 2016 Shanghai, China















SOC Policy

- It is a part of the government budget process in general
- Thus related parties and processes are to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Korean budget policy and process

SOC Policy : Housing

- It is a part of the government budget process in general
- It has very big political economic impact because provision of adequate housing has been one of central and important issues in political, economic, social arena (particularly in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MOLIT)

- This ministry covers land policy, housing policy, policies of infrastructure—Road, Railroad, Aviation
- It supervises big public enterprises ;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Korea Road Corporation, KORAIL, Railroad Construction Corporation, Incheon Airport Corporation, Korea Airport Corporation



Closing of FY2016 Budget



Welfare Policy

- It is also a part of the government budget process in general (following Korean budget policy and process)
- It is the part particularly influenced by the public opinion (sentiment) ; political process is important
- Issues ; size and transfer mechanism